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겹옷을 팔아 검을 사라 성경: 누가복음 22장 28-38절

Tag: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
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
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
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3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5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
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36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지어다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
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38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
되 족하다 하시니라 (눅22:28-38)

성경말씀에는 아주 작은 분량을 차지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가치
관을 담고 있는 말씀도 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는 듯하여 무시되거나, 왜곡 되게 해

석되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은 그 한 말씀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 (미국 초창기 필그림들은 마태복음 산상수훈(형제에게 대한 윤리)처럼 살다가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대적의 등장) 때문에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핵심이 되는 말씀은 36절 말씀이다.

예수님은 35절 말씀에 분명하게 36절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전했던 것을 상기시키셨다.

35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 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절에 잘 나타나 있다.

4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돈, 거추장스러운 짐, 두벌 신발 금지, 문안-관계로 인한 시간 허비 금지-전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행동강령)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셨다.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강령, 진리나 교리가 아님. 오히려 진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강령임.)

36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짐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지어다

35절 말씀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의 말씀이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다.

36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잡히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못하실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제자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비상 상황인 만큼 단단히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자.

우선 이 말씀 이전의 상황은 성만찬 상황이었다.

성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를 변경시키셨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변화시키신 셈이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유월절 아사셀 어린양이 되셨다.

예수님은 속죄양이 되셨고, 광야로 끌려가 들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아사셀을 위한 양이 되셨다.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는 성경에 없으나, 전승에 의하면 떠남을 위한 염소, 또는 남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유월절에는 칼피 항아리에 이름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도제비를 넣고 대제사장이 두 손을 넣어 제비 하나씩을 잡아 올리고 왼손의 제비는 왼편의 염소에게, 오른손의 제비는 오른편의 염소에게 준다.

‘이름을 위하여’(여호와와 이름의 위하여) 라고 쓰여진 염소는 온 백성의 대속물로 제단에 속죄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죄로부터 해방된 염소가 된다. 이 염소를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것이다.

출애굽 당시 장자의 저주를 담당할 죽음의 사자가 애굽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장자 대신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 넘어가고, 그 집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변경시키신 것이다. 물론 핵심 가치는 동일하다. 유월절 어린양이 예수님으로 변경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핍박 받는 상황,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상황) 36절 말씀이 필요하게 되었다.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우리는 오늘 28절 말씀부터 읽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와 함께 하였다.

-예수님은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셨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모두 각자 신념대로 행동하게 된다.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목적 만큼은 모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목적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당부하셨다. 예수님은 각자의 형편대로 고난에 대처하실 것을 아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상급도 예비해 두셨다.

-성만찬 이후에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박하고 위협적으로 변하였다.

-물론 그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변한 직접적인 이유는 가롯 유다의 배신이 결정적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혀 가셨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숨어 지내고 있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한 자들이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복과 사명을 주셨다.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신 나라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최 측근이라는 뜻이다.

-나라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니, 제자들을 통치자로 삼으신다는 뜻이다.

-즉, 고난에 동참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자 반열에 속하게 하시겠다는 뜻이다.

-이 사상도 성경 곳곳에 있으니 이상할 것이 없다.

-실제로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는데 힘써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에게 있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

특히 오늘 본문말씀은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다.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 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 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밀을 까부르듯 한다’는 표현은 손아귀에 넣고 요리조리 요리한다는 뜻이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을 까부르듯 하겠다고 도전했다는 뜻이다.

-틀림없이 베드로는 이번 사건으로 모종의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것이 뻔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예방을 하셨다.

-베드로는 이번 일로 믿음이 흔들릴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돌이킬 것이라고 확신하셨다.

-돌이킨 다음에는 네 형제(제자들)를 굳게 하여야 한다. 고 다짐을 받으신 셈이다.

-물론 베드로는 당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 특유의 설레발을 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백신을 주입할 필요를 느끼셨고, 모종의 상황을 연출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

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고 말씀해 주셨다.

-일종의 예언이고, 암시이고, 베드로용 안전장치인 셈이다.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전혀 다른 생각과 정당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셈이 되었다.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과 경솔함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35절부터 38절 까지의 말씀이다.

35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
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절에 잘 나타나 있다.

4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
지 말며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는 상황이 바뀐다. 성전을 지키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유다를 앞세워 겐세마네 동산으로 쳐들어 올 것이다.

예수님은 끌려가실 것이나, 제자들은 도망가야 한다. 제자들까지 끌려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어보니 이놈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따라올 놈이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할 것이다. (그래서 위험한 놈)

36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검뿔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품 속에 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몰래 숨기고 있었다. 예수님은 36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위급한 순간에 칼을 내어 뽑으실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 두어서 그들이 칼을 쉽게 뽑게 하신 셈이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실제로 위기의 순간에는 비상금도 필요하고, 전투식량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에 칼이 들려 있다는 것을 군사들이 알면 군사들은 제자들 전체를 체포하기 보다는 예수님만이라도 체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도망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니 베드로만 도발하지 않으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도발하였고,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붙여 주셔야 했다.

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18:10))

위기의 순간을 지혜로 넘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무기의 사용을 허용하셨다. 어떤 신학자는 영적인 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성령의 검), 상황 상 무리한 해석이다.

-어떤 신학자는 무력으로서의 칼을 사용해서라도 선교적 사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역시 무리한 해석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처럼 급박할 때는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무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진리는 아니다.)

-기독교국가의 무력 사용은 정복전쟁용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이 핵심 가치이다. 앞으로의 전쟁은 점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심 인물 무기력화에 집중될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없앤다는 논리는 마귀의 논리일 뿐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칼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고, 만약 칼이 없다면 겔옷을 팔아서라도 마련하라 하셨다. 당시의 겔옷이란 사실 가장 중요한 생활도구였는데, 그것을 팔아서라도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보전하라는 명령인 셈이다.

또 적대적 세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임하지 말고, 가장 적절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과연 무엇이 적절한 방어기제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교회들이 제각각 행동하였으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지키신다.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태는 안정되어 갔으며,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안전점검으로 방향이 선회되었다.

이번 사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신앙간증 4 성경: 누가복음 10장 30-37절

Tag: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10:30-37)

선린교회

sunlin.kr

sunlin.or.kr

개척이야기

초기 어린이 사역

2005년 영성 사역

2010년 부천사역과 비합사역

2012년 일터사역

2016년 다시 신대방동으로/카페사역

2017년 이념사역

2020년 새로운 사역으로 나아감